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공동체학교들이 2학기 개학합니다.
꾸러기학교 23일(월) 어린이학교 26일(목) 멋쟁이학교 29일(일)
- 늘푸른사랑방 윤산 청년이 지난 19일(목) 군에 입대했습니다.
- 교회운영위원회 정기회의가 다음 주일(29일) 오후 2시에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송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33 호

2021년 8월 2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어려울 때에만 찾아지는 하나님

몇 주 전에 공동체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가 다쳤다는 정재훈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교회로 갔다. 휴가기간 중 개 한 마리가 싸운 듯 얼굴과 다리에 상처가 있어서 소독을 하는 중에 상처가 생각보다 큰 것 같다고 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상처 입은 개는 사람이 찾아오니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의 경계를 하는 듯 했다. 상처를 건들면 짖을 것 같아서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조심하며 확인을 했다. 송우리에 있는 동물병원에 미리 연락을 하고 문 닫기 전에 가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했다.

평소에 산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데리고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으나 트럭에라도 태우고 오라는 동물병원과의 연락에 공동체 트럭으로 데리고 가기로 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한두 방울 떨어져서 임시방편으로 하우스 비닐문으로 지붕을 만들었다. 목줄을 잡아서 태우려고 했다. 기둥에 묶여 있을 때는 반가워 하더니 줄을 잡아 태우려니 버티고 뒷걸음질 쳤다. 한시라도 빨리 가야 치료를 하러가려고 줄을 당기는데 당길수록 더 버티고 뒷걸음질 쳤다. 억지로 끌면 아프지 않을까란 생각에 강하게 끌지 못했다. 여차저차해서 둘의 힘으로 강하게 끌어서 태운 다음에 잘 묶고 동물병원으로 갔다.

동물병원에 도착해서도 겁을 잔뜩 먹었는지 차에서도 반절은 앉아있는 겁먹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으로 힘으로 끌고 수의사를 만났다. 상처가 예리하게 난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니 얼굴과 다리에 물려서 생긴 자국을 보고 싸운 것 같다고 말하며 꿰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데리러 갔을 때 상처는 잘 치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겁을 먹은 모습이었다. 목과 엉덩이 부분을 들어서 안아도 크게 저항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돌아올 때에는 안고 태우고 내렸다. (병원 등록할 때 이름을 '젓가락'이라고 했다.)

치료 이튿날 상처가 잘 아물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병원에 다녀왔다. 처음 보다는 수월하게 안아서 태우고 내려서 잘 다녀왔다. 개집 영역을 벗어나면 꼬리를 내리며 겁을 먹는 것은 여전했다. 병원에서 상처가 깨끗이 잘 낫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개집으로 데려다 놓았다.

병원에 데리고 다녀와서 그런지 조금 더 신경이 쓰인다. 전에는 마냥 짓기부터 했던 '젓가락'은 알아보고 두 앞발을 들고 반가워했다. 그래도 힘들 때 데리고 갔다오니 알아보는 듯 했다. '어려울 때 도와주니 알아보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쓰다듬어 주었다.

그때 스치는 생각이 '어려울 때 도와주니 알아보는건가?' 싶으면서 '나도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즐겁게 지내거나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잘 떠올리지 않았었던 것 같고, 꼭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잘 풀리지 않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다. 사람이 참 연약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다. 힘들 일을 마주 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과 방법으로만 해결하면서 바로 앞일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다가 이내 포기하거나 좌절하기 때문이다.

요즘 시편의 말씀으로 성서일기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편은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시인의 내적 감정을 표현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곤경에 처할 때는 슬픔의 노래, 기쁨을 표현 할 때는 감사의 노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 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기도 한다.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과 은혜, 공의를 베푸실 것을 확신하며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죄로 인하여 죽음 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어느 때나 어렵고 힘들지 않은 적은 없다고 한다. 시편의 말씀들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 노래를 할 수 있는 삶으로 채우고 싶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 시편 71편 1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58편

제목 :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90 580 202 428 286 484

1-2 통치자들의 행위

해석: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중요한 사항이며 변하지 않는 기준인 신앙이 있어야 한다.

적용: 변하지 않는 기준(신앙)으로 정의와 공정하게 생활하자. 정의와 판단을 할 때 기도(하나님께 구함)하는 것을 잊지말자.

3-9 악한 사람의 특징

해석: 악하지 않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자신만 알고(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회개하자.

10-11 심판의 하나님, 살아계신 분

해석: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심판의 결과로 나타난다.

적용: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현재 상황에 불만을 가지지 말고 신앙을 지키자.

예수원 이야기

“우리는 이 모든 세월을 기적으로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에 마련해 주신 식탁이다.”

우리는 파송 교회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바람에 사역 현장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는 선교사들을 보아 왔다. 그러나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물가상승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가가 10퍼센트 인상될 때마다 하나님은 20퍼센트씩 공급을 늘려 주셨다. 우리가 한 끼도 굶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는 경외감을 느낀다. 하루에 세 끼씩, 적게는 50명에서 70명, 때로는 200명까지도 먹을 음식이 있었다. 3년 전에는 단 두 명의 종을 통해 아름다운 새 건물을 지어 주셨다. 그리고 지금은 기숙사를 지어 주고 계신다. 우리는 이 모든 세월을 기적으로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에 마련해 주신 식탁이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김없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인지 결코 알 길이 없을 것이다.

지금 내 심정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하다가 마침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눅5:4-9) 같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말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오신 수많은 기적들 앞에 경이감을 느낀다. 이것은 내가 예수원의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결코 보지 못했을 것이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27 : 7-9

인도자

14

다함께

인도자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복회기도

로마서 5 : 8

인도자

393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시 편 71 : 1 - 24

설교자

366

사랑방

“ 속히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 권재만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364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455(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허철영 강훈자 / 봉헌위원 : 강훈자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갈 때 저희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인도 하소서. 아멘.

속히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시편의 지은이는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은 위협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5부분이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도움을 바라는 기도가 담겨있습니다. 또한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원수들을 벌해 달라 기도하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고 찬양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함을 인정하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의 저자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솔직한 자신의 상황과 적들에 대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적들을 심판해 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와 달라 간구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저자의 현재 마음을 그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것처럼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 일을 찬양하겠다고 약속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하심을 이해하도록 도와줘 결국 평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만들어 갑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드디어 긴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찾아왔습니다. 방학 중간 중간에 학교에 나와 발도 가꾸고, 제습기도 틀고, 곰팡이 피지 않게 건조도 했는데 벌써 개학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에 많은 우려를 갖고 있지만 방역당국에서는 유치원은 비대면 하라고 하지 않네요. 꾸러기와 모두에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즐거운 개학을 위해 선생님들은 학교에 나와서 새 학기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의자와 블록은 모두 마당에 말리고, 천장에 있던 수많은 거미줄은 싹 정리했습니다. 화장실은 윤이 날 정도로 아주 깨끗해졌고, 현관에는 먼지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면서 저희도 개학이 기다려집니다.

방학 직전에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사진카드를 보냅니다. 1학기 가장 예쁜 사진에 편지를 써서 안부와 함께 개학에 대한 소개를 전했습니다. 카드를 받은 아이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선생님들 너무 보고 싶고, 학교 가고 싶다고 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의 사랑의 힘으로 꾸러기 교사는 항상 힘이 납니다.

아이들은 항상 알게 모르게 속속 자랍니다. 이번 방학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꾸러기는 외부에서 통학을 하는 만큼 안에서 사는 사람들과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방학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1학기를 마치고 쉼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여행도 다녀오고 주변 사람들과 만나기도 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 다행이라는 생각과 혹시라도 위험하지는 않

배움과 가르침

을지 걱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2주 전에는 6학년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시험이 끝나고 6학년 친구들과끼리 조를 나눠 놀기로 했지만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아 아쉽게도 무산되었습니다.

교사들은 방학기간동안 코로나 백신도 맞고 각 교실에 곰팡이가 자라지 않도록 제습기 관리와 환기를 통해 교실을 관리했습니다. 2차 접종은 백신 공급 차질로 미뤄져 방학기간 내 접종 완료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회의를 통해 온라인이 아닌 등교개학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완벽할 순 없겠지만 가정과 학교, 공동체의 서로 도움을 통해 2학기를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학교가 등교 개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신 공동체 식구들과 늘 함께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사 : 조 익 >

멋쟁이학교

멋쟁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여유롭지만 헛되지 않은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서 일기를 매일 각 학년 단체 채팅방에서 나누며,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삶을 응원합니다.

8월에 검정고시를 본 멋쟁이들이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그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6학년 멋쟁이들과 선생님들은 화이자 백신 2차까지 모두 접종을 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큰 부작용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개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멋쟁이들이 방학생황을 잘 마무리하고 2학기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역시 연장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사 : 장성아 >

동지들이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난 14일-16일까지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 한마당 잔치]가 온라인으로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공동체들과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모여 함께 삶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2017년 사랑방공동체에서 가졌던 한마당 잔치의 감동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잔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이라 대면해서 모일 때 만큼의 감동이 들지 않을 것이라 염려했지만, 이렇게라도 서로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참여했습니다.

삼일 동안 열방 공동체, 천안양문교회, 라파, 샬롬, 민들레 공동체, 디아코니아 자매회, 그리고 이름도 특이한 '없이 있는 마을 공동체' 등 다양한 공동체들을 소개받았습니다. 특히 세 공동체는 강의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집중해서 소개받았는데요. 첫째 날은 수도공동체인 '떼세 공동체'를 둘째 날에는 '예수원'.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브루더 호프 공동체'에 대해 자세한 나눔을 들었습니다. 세삼 어느 모임에 가도 이보다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진 구성원들의 모임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공동체들의 부르심과 사역,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삶의 헌신들을 들으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의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무엇 때문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공동체는 중독자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며, 결혼을 포기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며, 댓가 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손님들을 대접하고 가족의 안위와 심지어 건강까지 희생하며 이 삶을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모두 다 다른 모습이지만, 추구하는 것은 단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 갈까' 고민하고 애쓰는 제자들의 몸부림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한 답으로 모두는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한마당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형제애를 경험할 수 있었다면, 이번 잔치에서는 한 부르심을 받은 동지애를 깊이 느끼며 가슴에 고이 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손을 맞잡고 격려하고 싶어집니다. 동지들이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함께사는 이야기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에베소서 4 : 1-6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장악했다. 1990년대 후반 집권기 엄격한 통제 실시했다.(여성의 인격 탄압)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미군 수송기가 국외로 탈출하는 주민들을 가득 태우고 카타르로 갔다. 탈레반은 복수없는 총사면, 사면령 발표했으나 세계는 걱정하고 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가나안 농군학교>

1) 2021년 한 해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2) 다시 가나안을 세워가는 여정 가운데 시험 없도록 지켜주시고 모두가 육간에 강건함 가운데 기쁨으로 회복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3)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안적 삶과 교육이 가나안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사랑방공동체 휴가 후 하반기 시작을 위해

2) 임채정 손희정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3) 코로나19 감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

가을 장마 소식이 들려오는 한 주였습니다. 주중에는 비교적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 작업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수요일에는 하반기 시작모임을 온라인으로 가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학교들은 방학동안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청소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루터기 숙소도 함께 청소하고, 윗 운동장에 임시로 두었던 여러물건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간간히 소나기처럼 내리다가 토요일에는 정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장마가 예상된다고 하니, 쏟아지는 비에 대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정재훈 목사 >